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12

강 번영 대량 학살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2, 대량 학살에 관한 번영의 변형과 시입니다.

잠언 1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는 번영과 관련된 잠언의 두 가지 변형 반복에 대한 아이러니한 참여입니다. 이번 강의의 또 다른 주제는 대량 학살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 10장 15절과 18장 11절 두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유사한 진술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미묘한 차이점 속에서 그들은 독자와 청중에게 관련 있고 다른 종류의 실용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잠언 10장 15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파멸은 그들의 가난함이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같으니 그의 환상에는 견고한 성벽 같으니라. 잠언 10장 15절은 전통적으로 대조 평행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잠언 18장 11절은 전통적으로 동의어 평행법의 예입니다. 10.15절의 두 절 반절은 교차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시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어 순서가 반전되었습니다.

각 용어에는 상응하는 반대말이 있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접미사가 품사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용어의 세 집합은 모두 반대이며, 가난과 반대되는 부, 가난한 복수와 반대되는 부유한 단수, 파멸과 반대되는 그의 강한 도시입니다. 해당 요소는 상당히 직접적인 반대이며, 두 절의 반구에 있는 반대 진술은 보상 중심의 경제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관습적이고 심지어 진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11절을 보면 병행하는 요소와 내용이 모두 특이함을 알 수 있다. 잠언 18장 11절에서, 잠언 18장 11절 끝 부분에 있는 그의 환상의 마지막 문구는 잠언 10장 15절과 매우 유사하게 들리는 18장 11절의 명백히 관습적인 진술이 실제로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그 반대는 부이고 타원을 통해 암시적으로 부이며 다음 반대는 오히려 부자와 부자의 환상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요새화된 도시와 안전한 성벽입니다.

이 절의 평행법은 변형된 대응법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잠언 18장 11a절의 명목형 문장인 부자의 부라는 주제는 여전히 전제되어 있으며, 후반절은 두 번째 술어인 안전한 벽을 제공하지만 상당히 확장된 형태입니다. 부자의 부에 대한 은유적 방정식은 그의 요새화된 도시가 이제 비유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음의 숫자만으로 확장되는 안전한 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의 진정한 힘은 이 용어의 후반부 줄 끝, 이 속담의 맨 끝 부분에 있는 용어의 위치에서 비롯됩니다. 독자나 청취자는 행의 첫 부분에 언급된 격려적인 진리를 간단히 다시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그의 기대는 후반 행의 시작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전반 절의 의미를 놀랍게도 뒤집어 잠언 10장 15절의 이전 변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파괴적인 펀치 단어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잠언의 효과는 잠언 10장 15절에 분명히 표현된 것처럼 부의 보편적 이점에 대한 기대가 반전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10장 15절은 아마도 두 가지의 이전 변형이었을 것이며 잠언 18장 11절은 잠언의 메시지에 관한 한 매우 독창적인 요점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버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잠언 10장 15절과 잠언 18장 11절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Adal Berlin은 두 변형의 문맥적 적합성은 각각에 사용된 이미지의 종류에도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전반부 대사로 구성된 세 쌍의 시적 대사를 고려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후반부는 의미상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즉, 인용문은 한 줄의 공통점을 갖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병렬 처리인 인용문을 끝냅니다. 그녀는 여기서 시편 39장 13절, 시편 102편 2절, 시편 55편 2절, 시편 86편 6절

사이의 여러 유사점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1절과 평행한 잠언 10장 15절의 예를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각 구절의 의미론적 평행이 동일하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보다 더 평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경우의 평행 선택이 해당 구절이 위치한 더 큰 맥락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인용을 끝냅니다.

그녀는 우리의 변형 세트와 관련하여 잠언 10장에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의 다른 많은 대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잠언 18장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빠른 대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더 긴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1절은 이 중 하나에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두 변형의 상황적 적합성은 베를린이 인식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잠언 10장 15절은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속담 묶음의 일부입니다. 16절과의 관계는 특히 가깝기 때문에 잠언 10장 15절의 모든 요소는 잠언 10장 16절의 상응하는 표현을 가지며, 모든 요소는 잠언 10장 16절의 상응하는 표현을 갖습니다. 잠언 10장 15절은 잠언 10장 16절과 평행을 이룬다.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잠언 10 장 15절의 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의로운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반대는 후반부 구절로 표현됩니다. 두 쌍 사이의 상호 작용은 잠언 10장 15절b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파멸이 가난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잠언 10장 16절은 악인의 성취가 죄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 10장 15절에 언급된 가난은 죄의 샅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파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10장 16절은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에 경제적 성공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나중에 진정한 안전은 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두 잠언은 함께 지속적이고 진정한 번영을 포함합니다. 잠언 10:15과 10:16은 잠언의 쌍을 이룹니다.

두 번째 잠언은 첫 번째 잠언의 이야기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놀랍게도 잠언 10장 15절의 단순해 보이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경제 윤리에 대한 정교한 관점으로 결합됩니다. 잠언 18:11은 분명히 우연이 아닌 한 시적 행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형과 맥락적 배열을 통해 두 변형 모두에서 유사한 기대 반전이 촉발됩니다.

잠언 18:11도 속담군에 속하며, 잠언 18:10-15은 인접한 속담과 짝을 이루는 속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두 말 모두에서 안전을 약속하는 두 실체, 즉 여호와의 이름과 부를 각각 견고한 탑과 견고한 성, 높은 성벽으로 언급하고 은유적으로 식별합니다.

후반부 구절은 초기 진술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참으로 안전한 산성으로 확증됩니다. 대조적으로 부는 모호한 보안 원천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부자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다음 구절인 12절은 그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신의 자원, 즉 11절의 부에 대한 부당한 신뢰는 10절의 암시에 따라 주님 안에 있는 야훼에 대한 신뢰를 희생하면서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교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잠언 18장 11절의 유사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응하는 요소들의 깔끔한 집합 중에서 단 하나의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의 환상 속에 나오는 표현이다. 여러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언 10장의 의인이 피난처를 구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할 참된 부이니라. 둘째, 의로움과 부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립하는 데서 대조가 나타납니다.

셋째, 속담 쌍의 건축 구조 순서는 도시의 성채, 고대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견고한 탑에서부터 전체 요새 도시, 외부 방어벽인 성벽에 이르기까지 원심적 공간 역학을 보여준다. 공격이 성공할 경우 먼저 취해지는 시스템입니다. 넷째, 그의 상상이나 환상 속의 표현은 10-11절의 속담 쌍에서 평행 요소를 갖지 않습니다. 비록 전체 단위의 의미를 확정짓는 편치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이 요소입니다. 나는 이미 교만의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겸손을 장려하는 12절이 잠언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요점을 강화한다는 점을 간략하게 지적했습니다.

멸망 전 사람의 마음이 높다는 18장 12절의 교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안전하다는 동사와 문자적으로 또한 높음을 의미하는 교만하다는 단어 사이에 흥미로운 말장난을 도입합니다. 부자의 자만심은 교만, 즉 주님에 대한 신뢰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자원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드러납니다. 잠언 18장 12절a는 이런 종류의 자립을 망상적인 것으로 폭로하는데, 바로 그 요점이 잠언 18장 11절 끝 부분에 있는 그의 환상에 나오는 편치 단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의 환상에 나오는 단어인 변형 18에서 11의 가장 눈에 띄는 변형은 변형을 인접한 말과 복잡하게 연관시켜 잠언 10에서 12까지의 속담 삼중주로 만드는 중요한 연결 장치임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방금 여기에 제시한 위의 분석을 두 변형의 의미와 이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Murphy의 생각과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머피의 견해로는 잠언 10장 15절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현실에 대한 반성일 뿐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10장 15절을 18장 10절의 배경에 비추어 해석한 18장 11절을 비교하면서 다른 많은 잠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비추어 잠언 18장 11절의 의미에 대한 그의 확장된 논의는 전체적으로 인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약간 긴 인용문을 참아주십시오. 잠언의 첫 번째 줄은 분명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잠언 10장 15절을 의도적으로 따왔습니다.

부는 보호입니다. 11b조차도 다소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라인 a와 동의어 평행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관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10장 15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말은 명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높은 안전 지점만을 나타낸다면 그 말은 더 심오합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 언급된 높은 탑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누구를 신뢰합니까? 이 구절은 잠언 10장 15절과 관련하여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자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잠언 10장 15절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며, 이는 한 마디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한 경고가 들립니다. 11절의 부자는 10절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시들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통찰력 있고 관련성이 높은 성찰입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제시한 병행성 맥락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맥락적 배열과 함께 진행되는 반복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구절의 의미를 능숙하게 바꾸는 편집자의 손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미묘하면서도 보람있습니다. 그리고 머피와 대조적으로 잠언 10장 15절은 16절과 관련하여 머피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 영역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대량 학살에 관한 시라고 생각하는 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은 잠언 10장부터 12장까지의 작은 부분에 속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체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활동하지 않았고 힘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12a절의 지시 대명사 this는 11절에 묘사된 위기 상황, 즉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고 비틀거리며 학살당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지속된 학대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폭력적으로 끌려가 학살과 학대를 당하고 탈진과 부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는 이것이 계속되는 박해, 고문, 살인 캠페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특이한 표현인 'is it not'을 굴절시키는 12절의 물음표는 화자가 호소하는 권위인 잘 알려진 사실을 소개합니다. 좀 더 값비싼 산문을 바꾸어 표현하면 해당 구절의 실용적인 힘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변화를 만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거나, 위기의 전모를 모른 척한다면, 마음을 저울질하는 자는 이해한다는 유명한 속담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부인하는 사람들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희생자들에게는 그들의 결백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불의를 허용함으로써 초래된 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이 구절을 해석한 방식이 그것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과소평가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을 제시해 왔는데,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대담하고 일부는 아마도 다른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해석이 최선이거나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상상적으로 해석한 내용에 대한 오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그 자체로 그 간결성, 대담한 표현, 은유 등 여러 면에서 과소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몇 가지 흥미롭고 좋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제시한 많은 해석이 실제로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해석이고 유일하게 참되거나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독일 신학자로서의 나의 배경이 이 구절을 읽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유사점이 놀랍습니다. 나는 로마서 13장의 유명한 구절을 독일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당국에 복종하도록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의 글과 조부모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눈 토론과 대화를 통해 잘 기억합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잠언 24장 10절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명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고, 암시적으로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또 다른 변명은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런 뜻은 아니었고, 진심으로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나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600만 명의 사람들이 코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소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잘 알려져 있으며, 비틀거리며 살육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속담이 3,000년 전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단 학살의 위기에서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도 크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잠도, 편안함도, 친구도, 어쩌면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진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잠언들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다른 종교에서 때때로 이야기되고 있는 매우 다른 종류의 순교인 기독교 순교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폭파하고 그것을 순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순교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순교는 가장 필요한 이들을 사랑하고, 취약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 끌려가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들, 고문당하는 이들, 착취당하는 이들 등을 옹호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 신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약간 연상적이고 도발적이며 거의 과장된 진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순교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 순교는 죽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는 매우 긍정적인 것, 즉 모든 곳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실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2, 대량 학살에 관한 번영의 변형과 시입니다.